|  |
| --- |
| **2024 IMA 크리틱스(Critics) 지원서** |

|  |  |  |  |  |
| --- | --- | --- | --- | --- |
| **지원자명** | **한글** |  | **생년월일** |  |
| **영문** |  |
| **주소** | \* 시∙군∙구까지 기입 |
| **연락처** | **이메일** |  |
| **휴대전화** |  |
| **소속** | **□ 대학생****□ 직장인** | **□ 대학원생****□ 기타 ( )** |
| **주요 이력** | **연도** | **활동 내용** |
|  |  |
|  |  |
|  |  |
| **시각문화 비평****활동 내역** | **□ 있음** \* 해당 시 아래 내역 작성 | **□ 없음** |
| **연도** | **주관처/기관명** | **활동 내용** |
|  |  | \* 원고 제목, 저술∙발표∙게재 내용 등 |
|  |  |  |
|  |  |  |

위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지원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인)

**일민미술관장 귀하**

**1. 자기 소개 및 지원 동기**

|  |
| --- |
|  |

**2. 개인 연구 주제 소개**

|  |
| --- |
| \* 자신의 관심사를 포함해, 선정 이후 진행할 연구의 포괄적인 주제 및 방향성\* 2024년도 일민미술관 전시와의 연관성(선택) |

**3. 비평 희망 전시** \* 최소 1건 이상 선택, 해당 부분에 ■ 표시

|  |
| --- |
| **□ 《포에버리즘: 우리를 세상의 끝으로》, 전시기간: 2024년 4월─6월** |
| 참여 작가: 송세진, 윤영빈, 이유성, 전다화, 정연두, 차지량, 홍진훤, 황민규, isvn, 스티브 비숍(Steve Bishop), 정 말러(Zheng Mahler) 등 15인 내외개요: 《포에버리즘: 우리를 세상의 끝으로》는 동시대 미술과 대중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 새롭게 대두된 ‘영원주의(Foreverism)’를 탐구한다. 영원주의는 ‘레트로 마니아’, ‘포스트 프로덕션’ 등의 유사한 개념과 달리 과거를 영속화하는 일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략으로 여기며, 오늘날 소비문화와 시각이미지가 출현하는 새로운 기반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레트로에서 뉴트로로 이어지는 아이돌 문화산업의 경향이 이를 재빠르게 수용하고 있고, 이때 과거와 현재는 서로를 유지하기 위해 맴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의 회귀가 아니라 시각 이미지의 과잉으로부터 촉발한, 이미 사라졌다고 믿은 ‘역사’가 부활하는 방식이다. 전시는 이렇게 재구성되는 현재를 통찰하고, 기술적 진보, AI 혁명 등 사회적 양상과 함께 대두된 집단의 삶을 살핀다. |
| \* 비평 주제 제안 |
| **□ 《IMA Picks 2024》, 전시기간: 2024년 8월─11월** |
| 참여 작가: 김민애, 차재민 외 1인개요: ‘IMA Picks’는 자신만의 작업적 세계관을 구축한 세 명의 작가를 선정해 개인전을 개최하고 예술가가 우리 시대를 읽는 고유의 방식을 살피는 기획이다. 《IMA Picks 2024》는 현실, 즉 리얼리티에 대한 일민미술관의 관심을 작가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다. 전시는 동시대의 현실 및 현실 인식으로부터 심화하여 오늘날 구체적인 실재로 조립된 ‘미학적 현실’을 일관성 있게 드러내는 작가를 개인전 형식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관점은 작가와 작품이 해석되어 온 일반의 비평점과 변별됨으로써, 또 세 개의 기획전을 한 집합 속에 중첩해 놓는 전시 형식에 의해 더욱 풍성한 논의를 불러올 것이다. 《IMA Picks 2024》는 김민애, 차재민 등 중견 작가 3인의 상반된 방법론 및 매체를 딛고 현실을 다른 현실로 재현하거나 변위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
| \* 비평 주제 제안 |

\* 《붙임2》는 분량의 제한 없음, 파란색 글씨 삭제 후 작성